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올해 처음으로 미 소비자 심리 상승...관세 우려 둔화
- WSJ: 미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금융]

- Bloomberg: BofA, "미 주식 펀드, 11주 만에 가장 많이 유출"

[무역 전쟁]

- NYT: 트럼프 철강 관세 조치, 가전제품으로 확대한다
- Bloomberg: 포드 CEO "희토류 공급 하루하루가 힘들다"

[오일]

- WSJ: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유가 급등...공급 차질 우려 확산

[기후변화]

- Bloomberg: 다수의 대기업, 기후 목표 포기 중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월마트와 아마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 AP: 메타, AI 기업 Scale에 143억 달러 투자하고 Scale CEO 영입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YahooFinance: US consumer sentiment rises for first time this year as 'shock' of high tariffs wears off
올해 처음으로 미 소비자 심리 상승...관세 우려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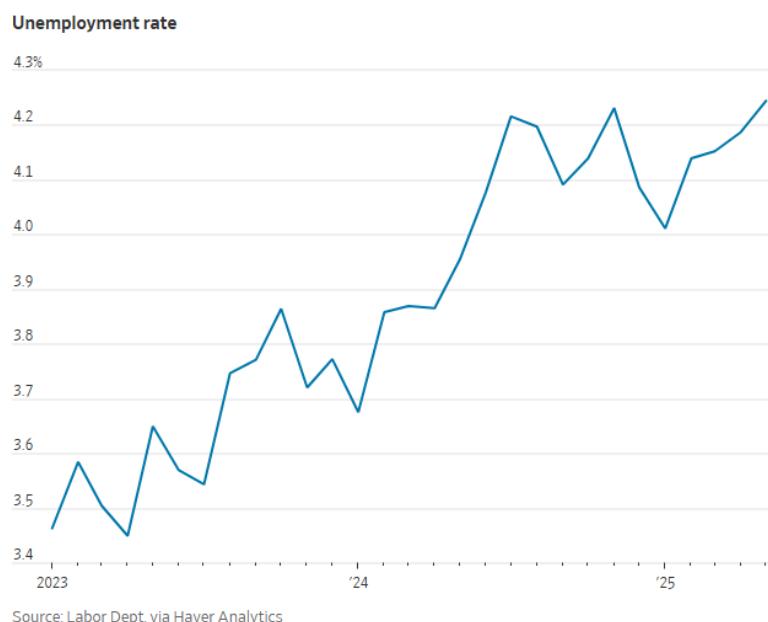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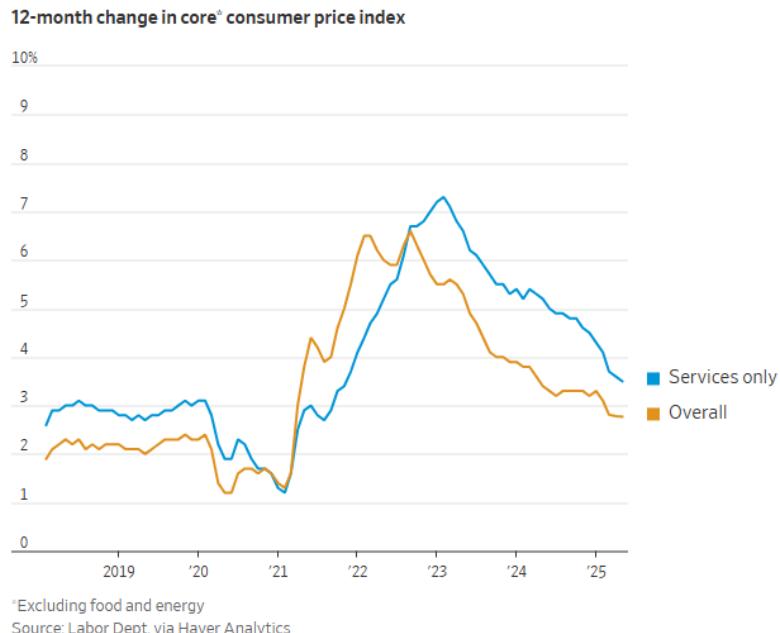
- 트럼프가 세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가운데 미 소비자들이 미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도 받아들이고 있다.
- 오늘 금요일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가 지난 2024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상승했다.
- 관련 심리 지수는 60.5로 지난달의 52.2보다 높았다. 5월의 가장 낮은 수치가 반등한 셈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치 53.6보다도 높았다.
-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는 5월의 6.6%에서 5.1%로 떨어졌으며 향후 5년부터 10년간의 기대 인플레도 5월의 4.2%에서 6월에 4.1%로 낮아졌다.

YahooFinance 기사

WSJ: The Case for Rate Cuts Is Growing

미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현재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약화되고 있고 노동 시장도 수요가 타이트하지 않고 균열이 생기고 있다. 즉, 관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수그러지고 있고 노동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 관세 관련해서 의류, 자동차 등 많은 종류의 품목들의 물가가 안정되고 기름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권 등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고 있다.
-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팬데믹 아래 가장 낮은 2.5%와 2.6% 사이에 있다.
- 그리고 지난 2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해고도 늘어나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 1월 아래 매달 상승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Equity Funds Hit by Biggest Outflows in 11 Weeks, BofA S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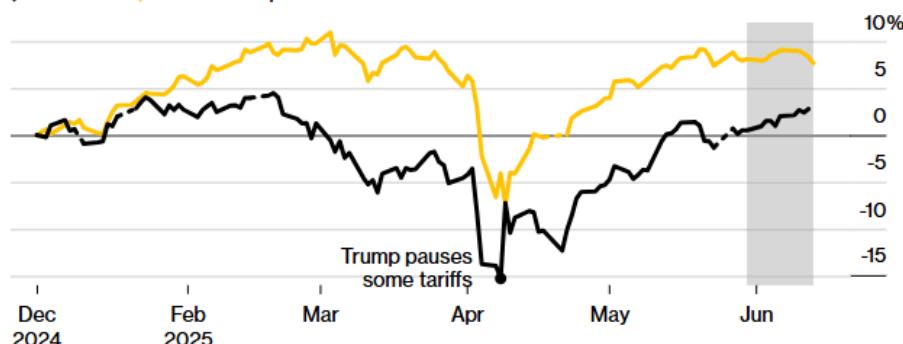
BofA, “미 주식 펀드, 11주 만에 가장 많이 유출”

-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식 펀드가 거의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식 시장 랠리가 중단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 EPFR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수요일까지 한 주 동안 약 98억 달러 규모가 주식에서 빠져나갔으며 올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유럽 증시 펀드도 9주 만에 6억 달러가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 지난 4월 최저치를 보였던 주식이 이달 들어 반등이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트레이드 전망은 불확실하다. 투자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다.

Stock Rebound Slows in June on Trade, Geopolitical Risks

The S&P 500 and Stoxx 600 are still below record highs

■ S&P 500 ■ Stoxx Europe 600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무역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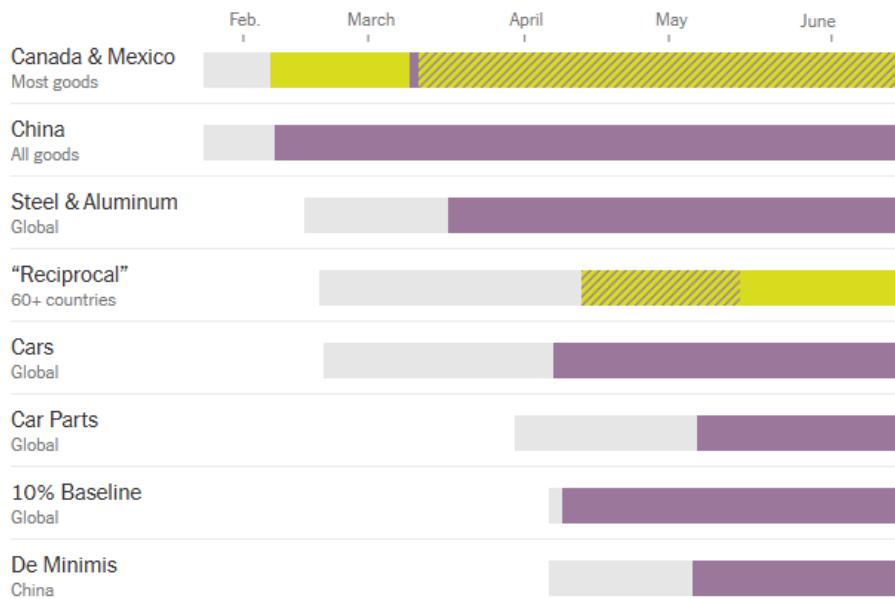
NYT: Trump Steel Tariffs Expanded to Hit Home Appliances

트럼프 철강 관세 조치, 가전제품으로 확대한다

- 연방 상무부는 오늘 목요일 세탁기, 냉장고 등 철강 부위가 들어있는 일반 가전 제품들에 관세를 곧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 상무부에 따르면 이른바 ‘철강 파생 제품’에 대한 50% 관세가 이달 23일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동일해진다. 새로운 관세는 각 수입품에 철강 함유 가치에 적용된다.
- 구체적으로 철강이 포함된 수입산 중에 세척기, 드라이어, 식품 쓰레기 처리기 등도 해당되면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Tracking Trump's Tariffs

Planned/threatened In effect Partly in effect Paused

HAVE GONE INTO EFFECT

NYT 기사

Bloomberg: Ford CEO Says Rare Earth Supply Is 'Day to Day' After Plant Halt**포드 CEO “희토류 공급 하루하루가 힘들다”**

- 포드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새로운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 공급을 수급하는데 힘겨워하고 있다.
- 이미 이 회사의 시카고 소재 익스플로어 공장이 지난달에 1주일간 임시 중단됐었다.
- 이 회사의 CEO인 Jim Farley는 “공급이 하루하루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공장들의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Bloomberg 기사

[오늘]**WSJ: Oil Soars as Israeli Strike on Iran Sparks Fears of Supply Disruptions****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유가 급등...공급 차질 우려 확산**

-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후, 금요일에 석유와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과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 상인들은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공급량의 약 25%와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 통로 중 하나이다.
- 또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이 중단되면 LNG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럽 국가들은 재고가 소진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육 중요해진다.

- 이란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OPEC+이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며 대응할 수는 있지만, 긴장이 더욱 고조된다면 시장의 안정적인 상황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WSJ 기사

[기후 변화]

Bloomberg: Big Business Is Abandoning Its Climate Goals 다수의 대기업, 기후 목표 포기 중

- 수년간 기업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과감하게 탄소 감축 목표를 내세웠지만, 최근 들어 많은 주요 기업이 목표를 약화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 석유, 가스 분야의 대표 기업 엑손 모빌은 2018년, 2025년까지 하루 1만 배럴의 조류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을 갖추겠다고 밝혔으나 2023년 회사는 해조류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그 목표를 철회했다.
- 미국 최대 은행인 UBS 역시 2021년, 2025년까지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0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2025년에 Credit Suisse를 인수한 후 이 목표를 2035년으로 미뤘다.
- 델타 항공은 10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해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막대한 탄소 해소 비용을 감안하여 최종 달성을 시점을 2050년으로 변경했다.
-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2020년, 운영 배출량을 2025년까지 35%, 2030년까지 65%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2024년, “저비용 저탄소 기술”이 부족해 목표를 달성이 어렵다 밝혔다.
- 코카콜라 또한 2021년에는 2025년까지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300만 톤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2024년 해당 목표를 폐기하고 병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더 낮은 목표를 설정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Walmart and Amazon Are Exploring Issuing Their Own Stablecoins 월마트와 아마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수수료를 절감하고 결제 속도를 높이는 기업용 코인으로, 이를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이 기업들 외에도 다른 다국적 대기업들이 미국 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은행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소매업체들의 최종 결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틀을 제시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달려있는데, 아직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WSJ 기사

AP: Meta invests \$14.3B in AI firm Scale and recruits its CEO for**'superintelligence' team****메타, AI 기업 Scale에 143억 달러 투자하고 Scale CEO 영입**

- 메타가 AI 스타트업 기업 스케일(Scale)에 143억 달러를 투자하고, 스케일의 CEO Alexandr Wang을 자사의 '슈퍼인텔리전스' 팀에 합류시켰다.
- 이는 AI 활동을 부활시키려는 메타 CEO Mark Zuckerberg의 전략적 행보로, 구글이나 OpenAI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 이를 통해 메타는 스케일 지분 49%를 확보하게 되었다. 스케일은 독립 기업으로 남지만, 메타와의 상호 관계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Alexandr Wang 또한 메타로 자리를 옮기지만 스케일 이사회 구성원으로는 남게 된다.
- Alexandr Wang은 스케일을 공동 설립한 이후로 데이터 주석 서비스를 기반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 GM과 토요타 등을 고객으로 확보했고, 최근에는 대형 AI 기업에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용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또한, 스케일은 국방부와의 계약을 포함해 그간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왔다.

AP 기사

[보고서]**트럼프 또 관세 압박...달러 가치 3년 만에 최저****올해 10% 떨어져****"추가 하락 가능성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 위협을 다시 시작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1일(현지시간) 기자들에서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각국과 협상하지 않고)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